曹愛姐*
孔世權**

婦人의 就業과 出産力과의 關聯性 硏究

目次

Ⅰ. 硏究背景
Ⅱ. 硏究目的
Ⅲ. 資料 및 方法
Ⅳ. 分析內容
Ⅴ. 結 論

Ⅰ. 硏究背景

최근 산업화과정에서 女性의 敎育 및 就業機會의 확대와 初婚年齡의 상승, 그리고 出産力의 低下 등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보편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바뀌어지는 社會構造에 적응을 위한 從屬現象이라면 이로 인한 2次的 影響과 향후 變動推移는 人口學的 측면에서 또 다른 관심을 갖게 된다. 그것은 産業化의 進展에 따라 女性就業의 보편화가 出産力과 어떤 관련을 갖게될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물론 女性就業이 出産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은 低出産力을 이루려는 차원에서 적지않은 論議가 이루어져 왔다.[1)2)] 즉, 先進國의 경우는 女性就業과 出産力이 逆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開發途上國에서는 그렇지 못한 면도 제시하고 있다[3~8)]

이러한 점은 就業時期, 職種 및 就業形態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도 있다. 특

*韓國人口保健硏究院 硏究員.
**韓國人口保健硏究院 首席硏究員.

1) Halvor Gille, "Summary Review of Fertility Differentials in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London (Liege, 1971), Vol. Ⅲ, 1969.
2) James L. Macable and Mark R. Rosenzweig,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ccupational Choice and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J.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3, 1976.
3) Jeanne C. Ridley, "Number of Children Expected in Relation to Non-familial Activities of the Wif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37, No. 3, July 1959.
4) K. B. Piepmeier, T. S. Adkins, "The Status of Women and Fertility", *J. of Biosocial Science*, Vol. 5, 1973, pp. 507~520.
5) Gunnar Myrdal, *Asian Drama*, New York, Pantheon, 1968.

히 女性이 出産을 끝낸 후에 特定 職業을 택하든가 아니면 農業과 같은 家事兩立職에 종사할 경우 女性就業과 出産力과는 밀접한 관련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出産期의 女性이 독립된 專門職에 종사할 경우 子女의 出産과 養育이 就業에 지장을 준다면 就業을 유지하기 위해서 出産을 조절하거나 出産을 위해서 就業을 중단하는 兩者擇一의 형태도 나타내게 된다.[9~13]

이처럼 女性就業과 出産力은 相反된 價値次元에서 相互作用으로 새로운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때 韓國과 같은 家族主義的 文化背景에서는 어떠할지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家族機能과 役割이 構造的 측면에서 家庭內의 地位나 規範에 의해서 일반화되고 있지만 相互作用의 측면에서는 일관된 行動樣式과 發展, 또는 創造的인 면을 배제할 수 없기[14] 때문이다. 즉, 近代的 槪念은 진취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성향이 役割創出과 機能調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傳統的 家族價値가 변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출산력의 감소와 家族構造의 변화, 그리고 女性就業率의 증가에서 緣由되는 것이다. 특히 女性就業은 1970年代 初期까지만 해도 未婚女性이 높은 率을 점했으나 최근에 와서 旣婚女性의 就業率이 未婚女性을 상회하고[15] 있어 婦人의 就業은

---

6) Philip Hauser, "A New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the Work both in Developing Area", mimeo, 1971.

7) Helen Ware, *The Relevance of Changes in Women's Roles to Fertility Behaviour : The African Evidence,* The Population Council, New York, 1975.

8) Terence Hull, Valerie Hull, "The Relation of Economic Class and Fertility : An Analysis of Some Indonesian Data", *Population Studies,* Vol. 31, No. 1, March 1977, pp. 43~57.

9) 孔世權 外,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pp.195~204.

10) 具成烈, "旣婚女性의 經濟活動과 出産力", 韓國開發研究, 1(3), 韓國開發研究院, 1979.

11) 具成烈 外, "家族規模의 決定要因과 旣婚女性의 經濟活動", 韓國開發研究, 2(4), 韓國開發研究院, 1980.

12) 洪思媛, "女性의 就業狀態와 出産力 變化", 韓國開發研究, 創刊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13) 韓仁淑, 金弘淑, "韓國女性의 經濟活動參與와 出産力에 관한 研究", 人口綜合分析시리즈,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14) Ralph H. Turner, "Some Family Determinants of Ambitio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 46, 1962, pp.397~411.

15) 經濟企劃院의 "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 및 經濟活動人口年報"에 의하면 1970年 旣婚婦人의 就業率은 30%, 未婚女性은 40%였고, 1985年에는 旣婚女性이 41% 그리고 未婚女性은 37%를 차지함.

出産力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近代化 과정에서 女性의 機能 및 役割變化를 就業形態만으로 한정지을 수 없고, 이러한 점을 出産力의 影響要因으로만 생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데이비스」 및 「브랙」(Davis, Kingsley and Blake, Judith, 1956)[16] 또는 「프리드맨」(Freedman, Ronald, 1965)[17]과 같은 學者들은 出産力의 영향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류하여 출산력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婦人의 취업, 특히 家事와 독립된 형태의 취업은 女性役割의 새로운 轉換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역할변화가 출산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低出産을 성취하려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女性人力의 効率的 活用 내지 家族福祉의 측면에서도 주요 관심점이 아닐 수 없다.

Ⅱ. 研究目的

본 研究는 최근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既婚婦人의 就業과 出産力과의 관련성을 檢討하려는데 촛점을 두었다. 물론 出産力과의 관련변수는 就業 外에도 다양함은 이미 많은 出産力研究들이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女性就業은 産業化過程에서 女性役割의 특징적인 변화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역할 변화가 여성의 고유 기능의 하나인 出産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는 주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研究는 단순히 婦人의 취업과 出産力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는 學問的 관심에서 보다는 婦人의 就業이 보다 보편화될 경우 출산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검토함으로써 女性人力活用의 측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目的을 두었다.

Ⅲ. 資料 및 方法

본 연구에 이용된 기초자료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이 1986年에 전국규모로 실시한 「家族生活週期調査」[18] 資料이다. 이 調査는 全國的으로 島嶼地域을 제외한 나머지 地域을

16) Kingsley Davis, Judith Blake,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 An Analytic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 1956.

17) Ronald Freedman,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 An Annotated Bibliography*, New York, Irvington Publishers Inc., 1965.

18) 孔世權外, 앞글, 1987.

대상으로 確率系統抽出한 75個 調査區에서 약 3,400家口를 單純任意抽出하여 이들 가구를 최종 調査單位로 한 것이다. 여기서 표본추출시 추출된 家口는 3,498家口였으나 이 중 실제 조사완료된 가구는 3,400家口였으며 동 가구내에 居住하는 15~64歲 既婚婦人은 3,013名으로 이들이 본 연구의 分析對象이 되었다.

본래의 調査는 한국의 家族構造를 파악하려는데 기초를 두고 設計하였으나 조사항목에 結婚歷과 出産歷, 그리고 就業歷이 포함되어 있어 婦人의 就業과 出産力을 관련시켜 분석하는데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結婚과 出産은 부인의 生涯記錄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就業歷 역시 結婚前부터 調査당시까지의 就業經驗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하여 既婚婦人들의 최근의 就業動向 및 就業樣相을 살펴본 후 취업양상 및 직종별 初婚年齡, 出産間隔, 現存子女數를 분석하여 婦人의 就業과 出産力과의 關係를 糾明토록 한 것이다.

Ⅳ. 分析內容

1. 婦人의 就業動向

傳統的으로 既婚婦人의 役割이 家庭에 국한되었던 것은 東西間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産業化에 따른 經濟活動의 변화는 女性의 役割變化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人類學者들은 家庭內에서의 夫婦間의 役割分擔은 단순한 生物學的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慣習이나 規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19]도 하고 있다. 즉 出産과 授乳 등 生物學的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은 男女가 다같이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일의 경우 이를 어떻게 合理的으로 分擔해서 수행하는 것이 능률적이느냐는 점에 관심을 갖고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이를 규범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産業化는 家庭의 機能을 社會의 共同體的 量産體制로 바꾸면서 機能分化와 役割縮小가 家庭의 役割再定立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여기서 産業化 初期는 주로 男子들 만이 家庭과는 독립된 직장에서 얻어진 收入으로 家計를 지원하고, 女性은 家庭內에서 서어비스 및 消費機能을 전담하는 형태의 특징을 가졌다. 또 産業化의 進展은 家

19) W. N. Stephens, *The Family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3, pp.283~287.

事의 간편화와 少子女家族形成, 그리고 子女教育 및 文化生活의 享有 등 높아진 消費欲求를 충족하기 위해 女性의 就業性向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女性就業, 특히 婦人들의 취업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점은 두가지 측면의 상호작용으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家庭밖에서 모자라는 일손을 충족시키기 위한 誘引要因(pulling factors)과 家庭內에서 높아지는 消費欲求를 충족하기 위해 婦人들을 밀어내는 排斥要因(pushing factors)이 그것이다.

어떻든 최근 女性就業의 증가는 刮目할 만하며 農業部門의 就業率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非農業部門에서는 급속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表1 參照)

Table 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Year(Female)

年度別 女性經濟活動參加率 및 就業率

(Unit : 1,000 p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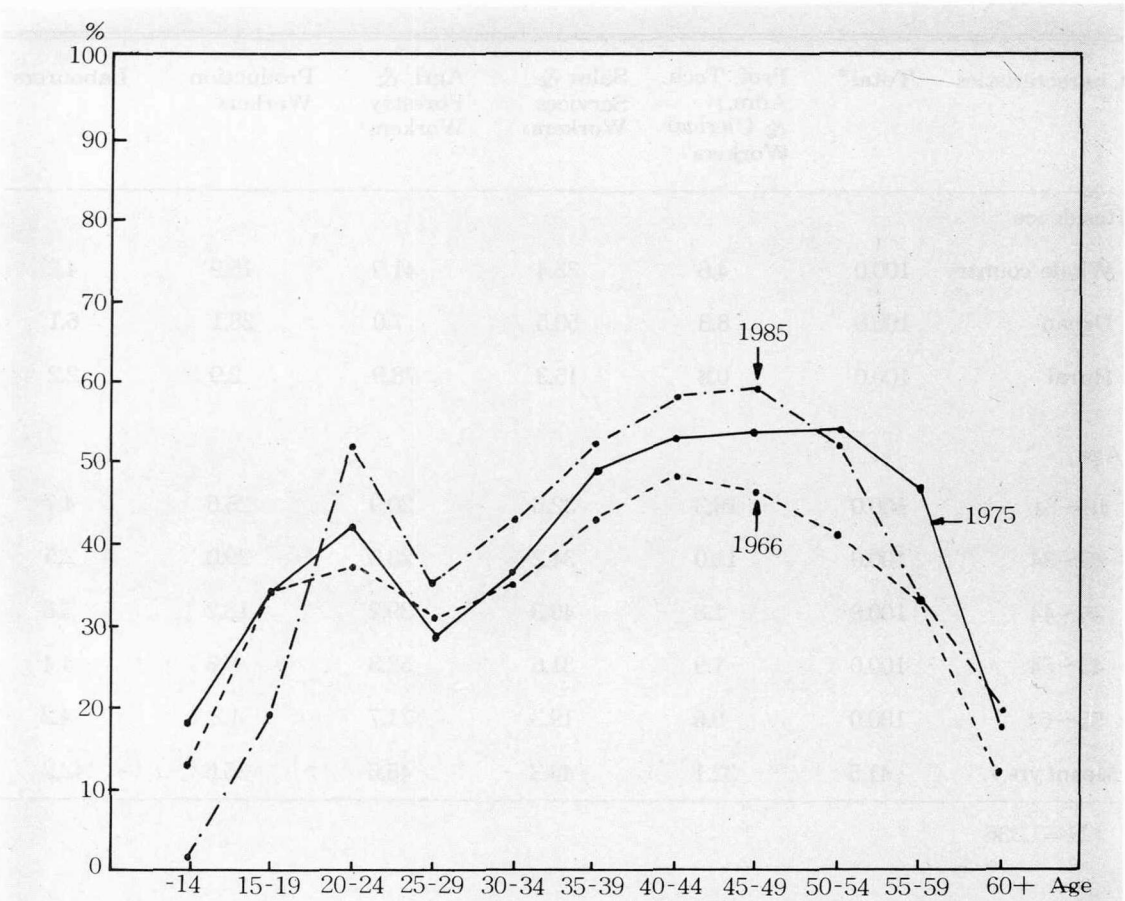
Year	Population 14 Yrs. Old or Over	Economically Active Pop.	Employed	Activity Rate(b / a)	Employment Rate (c / a)
	(a)	(b)	(c)	(%)	(%)
Whole Country					
1965	8,35	3,051	2,884	36.5	34.5
1975	11,257	4,456	4,341	39.6	38.6
1985	14,710	5,969	5,828	40.6	39.6
Farm Household					
1965	4,651	1,906	1,871	41.0	40.2
1975	4,585	2,377	2,357	51.8	51.4
1985	3,264	1,655	1,642	50.7	50.3
Non-Farm Household					
1965	3,700	1,145	1,013	31.0	27.4
1975	6,672	2,079	1,984	31.2	29.7
1985	11,446	4,314	4,186	37.7	36.6

Source : Ministry of Labour,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 1977, 1986.

年齡別 就業率은 20~24歲의 年齡群에서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19歲未滿의 相對的 低下는 教育機會의 擴大에 따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산기인 25~29歲의 경우 他年齡層보다 낮은 취업율을 보이나 이들 年齡層에서도 年齡別로는 계속적인 증가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이제 少子女 形成의 定着으로 出産과 養育이 就業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圖1 參照) 이처럼 女性就業의 量的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條件의 개선이나 就業意慾을 充足시켜 주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職種別로 볼 때 기혼부인의 경우 약 42퍼센트가 農業部門이고,

Figure 1. Comparison of Employment Rates by Year and Age

女性就業率의 年度別 比較



Source : Economic Planning Board,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Vol. 1, 1969, 1977.
Ministry of Labour,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 1977, 1986.

33퍼센트가 販賣 및 서어비스職임을 생각하면 산업화에 의한 離農現象에 따라 男性勞動力이 부족해짐으로써 여성의 農業參與가 불가피하고 販賣 및 서어비스部門에도 高齡의 경우는 家事兩立형태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또 家庭과는 독립된 專門·行政·技術 및 事務職, 또는 生産職의 경우는 젊은층에 국한되며, 賃金面에서는 남성의 45퍼센트[2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에 있고 이러한 취업도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表2 參照)

Table 2. Percent Distribution of Women's Current Occupation by Residence and Age

現就業者의 特性別 現職種別 分布

(Unit : %)

Characteristics	Total*	Prof. Tech. Adm. & Clerical Workers	Sales & Services Workers	Agri. & Forestry Workers	Production Workers	Labourers
Residence						
Whole country	100.0	4.6	33.4	41.9	15.9	4.2
Urban	100.0	8.3	50.5	7.0	28.1	6.1
Rural	100.0	0.8	15.3	78.9	2.9	2.2
Age						
15~24	100.0	16.3	32.6	20.9	25.6	4.7
25~34	100.0	11.0	34.2	23.3	29.0	2.5
35~44	100.0	1.8	40.3	39.2	13.2	5.6
45~54	100.0	1.9	31.6	52.3	9.8	4.4
55~64	100.0	0.6	19.3	71.7	4.2	4.2
Mean(yrs.)	41.5	32.1	40.3	45.6	35.6	42.2

* N=1,336

20) 勞動部, 1983年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4.

이러한 점은 1986年 旣婚婦人의 就業率(44.3%)이 1966年 전체여성의 就業率(33.9%)보다 약 10퍼센트 이상이 높아졌으나, 地域別로 農村의 취업율은 67퍼센트인 반면 都市에서는 34퍼센트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 年齡別 就業率에서도 15~24歲群만이 都市가 農村보다 다소 높은 就業率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25歲 이상에서는 農村의 취업율이 都市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都市에서는 就業機會가 制限되어 있어 婦人就業도 選擇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表3 參照)

Table 3. Current Employment Rates by Age and Residence

年齡 및 地域別 現就業率

(Unit : %)

Age	Whole Country	Urban	Rural
Total	44.3*	33.6	67.2
15~24	22.2	23.6	18.0
25~34	32.1	28.8	42.3
35~44	54.0	40.7	82.7
45~54	60.1	43.4	84.9
55~64	48.8	24.5	77.6

*N=1,336

그러나 婦人就業의 選擇的인 면은 아직도 女性就業의 絶對性이 약하고 대부분의 여성이 家事를 중시하면서 적당한 조건과 기회가 주어졌을때 만이 就業을 하는 경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婦人就業은 家事兩立職의 참여가 높고 이는 就業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家事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家事와 독립된 就業과는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婦人들의 經濟的 欲求는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經濟的 欲求充足을 위해서는 家事 外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를 택하려는 경향이 높다.[21]

21) 1986년 실시한 '한국의 가족생활주기 조사' 자료에 의하면 현 취업동기중 경제적 동기는 46.6%임.

2. 婦人의 就業樣相

婦人의 就業은 生涯週期에 따라서 結婚과 出産 및 子女養育 등 특수한 機能과 役割에 의해 그 樣相을 달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된 자료에서도 전체 부인(15~64歲)을 結婚을 前後한 就業經驗與否로 분류하면 매우 다양해진다. 우선 結婚前의 취업여부만으로 봤을 경우 취업했다는 부인은 50.6퍼센트이었으며, 結婚後의 취업여부만으

Table 4. Percent Distribution of Pattern of Work by Women's Characteristics

婦人의 特性別 就業樣相

(Unit : %)

Characteristics	Total	Only Before Marriage	Only After Marriage	Before & After Marriage	Never Worked
Total	100.0*	26.1	32.8	24.5	16.6
Residence					
Urban	100.0	30.7	24.4	24.0	20.9
Rural	100.0	16.5	50.5	25.6	7.5
Age					
15~24	100.0	61.3	2.1	28.4	8.2
25~34	100.0	43.6	12.4	28.7	15.3
35~44	100.0	16.7	40.8	26.0	16.5
45~54	100.0	5.7	56.8	18.7	18.8
55~64	100.0	4.7	57.9	15.6	21.8
Mean(years)	38.7	30.8	45.7	36.5	40.5
Level of Education					
Under primary school	100.0	9.4	53.6	22.7	14.3
Middle and high school	100.0	41.2	15.7	25.2	17.8
College and more	100.0	34.8	4.3	34.8	26.2
Mean(years)	7.7	10.2	5.2	8.0	8.5

* N=3,013

로 볼 경우는 57.3퍼센트의 부인이 취업한 것으로 결혼후에 취업한 부인이 약간 더 많았다.[22] 그러나 結婚前後의 취업여부를 함께 볼 경우 結婚前에만 취업한 부인은 26.1퍼센트에 달하며, 地域別로는 農村居住 부인 보다는 都市居住 부인이 거의 두배나 가깝게 높고, 젊은 年齡層과 高學歷일수록 높은 율을 보이고 있어 최근의 教育 및 就業機會의 확대에 의한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러나 結婚後에만 취업한 경우는 32.8퍼센트에 달하며 農村이 都市보다 두배 이상 높고, 高齡과 低學歷 水準에서 높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結婚前에만 취업한 경우와는 對照를 나타내고 있다. 또 結婚前後 모두 취업한 부인은 24.5퍼센트로 地域間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젊은 年齡層과 高學歷 부인에서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최근 젊은 층에서 결혼과 관계없이 취업을 지속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表4 參照)

이제까지 많은 研究들[23~28]이 教育과 就業이 結婚 및 出産力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 왔으나 그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성을 지니며 또 한 社會의 人口構造나 文化的 屬性에 따라서도 특징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최근 韓國의 급속한 産業構造의 변화는 教育熱을 촉진시켰고, 이러한 教育이 바탕이 되어 産業化의 기반이 이루어졌다[29]면 女性就業의 계속적인 증가는 結婚前 就業率의 증가로 인해 初婚年齡을 上昇시키면서 結婚後까지도 취업을 계속하는 경향을 가져 왔다고 생각된다.

---

22) 조사대상 3,013명을 결혼전 취업여부만으로 분류할 경우 취업자 50.6%, 비취업자 49.4%이었으며 결혼후 취업여부만으로 분류할 경우 취업자는 57.3%, 비취업자는 42.7%이었음.

23) Judith Blake, "Demographic Science and Redirection of Population Policy", *Public Health and Population Change*, Windel C. Sheps and Jeanne Clare Ridley (eds.), University of Pittsburg, 1965, pp.58~79.

24) Bom Mo Chung and Others, *Psychological Perspective : Family Planning in Korea*, Seoul, Hollym Corporation, 1972.

25) Ronald Freedman, John Y. Taheshita, *Family Planning in Taiwan : An Experiment in Social Chan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26) Susan Hill Cochrane, "The Effect of Income on the Demand for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New York, April 1974, pp.18~20.

27) 盧美蕙 外, 女性의 就業實態調査, 韓國女性開發院, 1986.

28) 具成烈, 앞글, 1979, pp.131~132.

29) 宋瑋燮, "勞動力의 質的水準向上과 經濟成長", 韓國人口學會誌, 7(1), 韓國人口學會, 1984.

Table 5. Percent Distribution of Occupation by Pattern of Work

就業樣相別 職種 分布

(Unit : %)

Occupation	Only Before Marriage	Only After Marriage	Before & After Marriage	
			Before	After
Total	100.0(787)	100.0(983)*	100.0(733)*	100.0(733)*
Prof. Tech. Adm. and Clerical Workers	44.6	1.2	26.2	12.7
Sales & Services Workers	12.6	34.3	10.6	34.4
Agri. & Forestry Workers	6.0	44.4	22.5	26.5
Production Workers	36.6	15.0	40.1	24.0
Labourers	0.2	5.1	0.5	2.5

*Excluded 5 unknown cases

부인의 就業樣相別 職種은 〈表5〉와 같이 結婚前에만 취업한 경우는 專門·行政·技術·事務職에 종사한 경우가 제일 많으며(44.6%), 結婚後에만 취업한 부인은 農業關聯職에 종사한 率(44.4%)이 제일 높다. 그러나 結婚前後 모두 취업한 부인은 結婚前이나 後에만 취업한 부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結婚前에는 生産職에 종사했던 경우가 제일 많으며, 結婚後에는 販賣 및 서어비스職 종사자가 제일 많다. 특히 結婚後에만 취업한 부인과 비교해 볼 때 專門·技術·行政 및 事務職 종사자의 比率이 상당히 높으며 家事兩立職에 속하는 農業關聯職에 종사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3. 就業과 初婚年齡

최근에 이를수록 여성에 있어서 教育水準의 向上과 結婚前 就業性向은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産業化에 따라 모자라는 일손을 여성인력으로 대치하려는 현상과 家庭經濟를 돕기 위한 수단 및 그 외 여성 자신들도 社會參與를 통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거나 自己發展을 위한 動機로 취업하고자 하는 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Table 6. Employment Rate before Marriage by Year and Age at Interview

年度 및 年齡別 結婚前 就業率

(Unit : %)

Age	1976	1986	'86−'76
Total	24.1	58.9	34.8
15～24	44.6	89.7	45.1
25～29	40.3	78.9	38.6
30～34	24.6	63.8	38.2
35～39	17.0	51.3	34.3
40～44	10.5	32.8	22.3
45～49	9.6	24.1	14.5

Source : 1) Korea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1978, p.53.

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Family Transition in Korea*, 1987, p.193.

다. 이들을 年度別로 비교해 보면 1976年 調査結果[30]에서는 15～49歲 부인중 婚前에 취업경험이 있다는 부인은 약 24퍼센트 정도였으나 1986年 調査結果[31]에서는 약 59퍼센트로 35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로는 24歲이하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差異(45%)를 나타내고 있으며, 高齡일 수록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6 參照) 또한 이들 婚前 就業經驗者 중 약 2/5이상은 婚後에도 취업을 계속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教育機會의 擴大와 婚前就業率의 增加로 인해 婚期가 얼마나 遲延되는가는 결혼자체가 社會·文化的인 면과 個人條件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단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教育과 就業이 전통적인 皆婚이나 早婚觀念을 바꾸어 놓는데 有意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婚前就業與否에 따른 初婚年齡을 보면 2.3年의 差異를 보인다.(表7 參照)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教育期間이나 教育으로 인해 結婚觀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인지 밝히기는 어렵지만 高學歷에서 初婚年齡이 높게 나타나는 것

30) 朴丙台 外, 1976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8, 12.

31) 孔世權 外, 앞글, 1987.

Table 7. 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Work Experience before Marriage and Level of Education

結婚前 就業與否 및 教育水準別 平均 初婚年齡

(Unit : years)

Work Experience before Marriage	Total	Under Primary School	Middle and High School	College and More
Total	21.1	19.5	22.4	24.0
With work experience	22.3	20.6	22.8	24.5
Without work experience	20.0	19.0	21.6	23.0

은 一般的인 현상이며, 같은 學歷에서도 婚前就業與否에 따라 1.5年의 差異를 보인다. 또한 婚前 就業職種別로도 0.5年~4.3年의 差異를 보인다.[32] 이렇듯 初婚年齡이 婚前就業與否와 學歷에 따라 많은 差異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반드시 이들 變化가 教育 및 就業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時代的 社會風潮에 의한 영향도 컸음을 알 수 있다.

4. 就業과 出産間隔

婦人就業이 初婚年齡과 밀접한 관련을 갖듯이 出産間 間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出産力 調査[33~36]들은 늦은 結婚과 母乳授乳의 忌避 등으로 出産템포는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出産의 力動的인 現象으로 결혼을 늦게하는 대신 出産은 조기에 끝내려는 점과도 相通한다. 즉 家族生活週期

32) 專門·行政·技術 및 事務職은 23.4歲, 판매·서어비스職은 22.9歲의 順이며, 가장 낮은 初婚年齡을 보이는 職種은 單純勞務職으로 19.1歲이다.

33) 李時伯, "韓國婦人의 出産間隔에 대한 분석", 韓國의 出産力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6.

34) 金應錫 外, "授乳 및 産後無月經이 出産力에 미치는 영향", 韓國의 出産力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6.

35) Y. J. Kang, *Analysis of Birth Interval and Fertility in Korea*,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81.

36) P. J. Donaldson, D. J. Nichols, "Changing Tempo of Fertility in Korea", *Population Studies*, Vol. 32, No. 2, 1978, pp.231~249.

上 結婚後 첫자녀 出産時까지의 期間은 1935~44年 결혼코호트에서 4.1年이었으나 1955~64年 결혼코호트에서는 1.9年, 그리고 1975~85年 결혼코호트에서는 1.2年이며, 첫자녀 출생에서 막내자녀 출생까지의 기간은 결혼코호트별로 각각 15.5年에서 9.1年으로, 다시 2.2年으로 단축되고 있으며, 동 期間에 平均 出産兒數도 6.2名이 4.3名으로, 그리고 1.8名으로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3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부인의 就業은 出産間 間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就業經驗與否에 따른 차이는 有意性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分析은 特定 出産間隔內의 就業與否를 확인하여 분석되어야 하나 資料上의 制限으로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結婚後 첫자녀 出産時까지의 期間인 初期出産間隔(earlier birth interval)은 現就業與否別로 약 4個月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家族週期上

Table 8. Mean Length between Marriage and First Birth by Current Work Status, Pattern of Work and Family Life Cycle Stage

現就業與否 및 就業樣相別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平均 初期出産間隔

(Unit : Months)

Pattern of Work	Total	Extension	Completed Extension	Contraction	Completed Contraction & Dissolution
Total	22.5*	14.4	20.2	32.5	35.5
Current Work Status					
Worker	24.8	18.9	21.6	32.6	43.0
Non-worker	20.6	13.2	19.1	32.5	31.1
Pattern of Work					
Only before marriage	15.9	12.5	16.0	36.1	20.0
Only after marriage	28.1	24.6	24.2	33.0	44.1
Before and after marriage	20.3	15.9	18.7	31.8	25.5
Never worked	23.7	14.3	22.4	30.8	26.9

*Excluded women having no births and unknown cases.

37) 孔世權 外, 앞글, 1987, pp.141~144.

으로 擴大期, 즉 出産期에 있는 부인에서 現就業婦人이 非就業婦人보다 5.7個月이 더 길다. 就業様相別로 분류해 보면 結婚後에만 취업한 경우에 가장 길고 結婚前에만 취업한 경우는 가장 짧아서 婚前就業으로 늦은 結婚이 오히려 初期出産間隔을 짧게 하는 것으로 類推할 수 있다.(表8 參照)

또한 15~44歲 可姙期 婦人만을 대상으로 한 現就業與否別 開放出産間隔(open birth

Table 9. Mean Length between Last Child and Time at Interview (Open Birth Interval) by Women's Characteristics and Current Work Status

婦人의 特性 및 現就業 與否別 開放 出産間隔

(Unit : Months)

Characteristics	Total	Current Worker	Current Non-Worker
Total	74.9*	90.2	64.4
Residence			
Urban	73.4	84.4	67.9
Rural	78.7	98.5	49.0
Age			
15~24	19.8	28.8	17.9
25~34	46.9	54.7	42.8
35~44	122.3	126.5	117.6
Level of Education			
Under primary school	92.8	104.1	75.8
Middle and high school	64.8	75.6	60.0
College and more	68.2	70.0	67.5
Number of Living Children			
1	41.5	60.9	35.3
2	66.1	77.2	60.0
3 and more	98.8	105.1	91.6

*Included ever-married women aged 15~44 having one or more births. (N=1, 512)

interval) 즉, 막내 출산후 조사시까지의 期間은 現就業 부인이 90個月인데 비해 非就業 부인은 64個月로 26個月의 차이를 나타내며, 地域別로 보면 都市地域 부인은 現就業者와 非就業者間에 약 17個月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農村地域 부인은 50個月로 더 많은 차이를 보이나 이는 都市·農村間 婦人의 年齡構造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年齡別 現就業與否에 따른 開放出産間隔은 15~24歲 부인에서는 약 11 個月, 25~34歲 부인에서는 12個月, 그리고 35~44歲 부인에서는 9個月의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教育水準別로는 낮은 教育水準일수록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낮은 교육수준의 부인중에 高齡者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現存子女數別로는 1名의 자녀를 둔 부인에서 26個月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表9 參照)

이처럼 可姙期 부인의 現就業與否別 開放出産間隔間의 차이는 반드시 就業에 의한 차이만은 아닐지라도 就業이 出産間隔에 작용하는 한 要因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제까지의 出産間隔에 대한 관심은 出産力이나 母子保健의 차원에서 母子의 健康과 出産力低下라는 점에 두어 왔지만 就業과 같은 要因이 出産間 間隔을 연장시키는데 間接作用을 한다고 볼 때 향후 부인 취업의 普遍化는 出産力 低下에도 작용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母性保健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5. 就業과 出産類型

婦人就業과 出産力의 逆의 관계는 女性就業에 따라 結婚年齡[38]이 늦어지고 독신율[39]이 높아지거나 결혼을 했으나 子女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40]이 就業과 出産 및 子女養育의 兩者擇一的 役割選擇[41~43]에 따른다는 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여성

---

38) R. Freedman, P. Whelpton and P. A. Campbell, *Family Planning Sterility and Population Growth*, Mcgraw- Hill Book Company, Inc., New York, 1959.

39) Ruth B. Dixon, "Women's Rights and Fertility", Reports on Population/Family Planning, No. 17, 1975.

40) June Sklar, "Childless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1971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Washington D. C., 1971.

41) Judith Blake, *op. cit.*, 1965.

42) D. M. Heer, "Educational Advance and Fertility Change", in IUSSP,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London, 1969.

43) R. H. Weller, "The Employment of Wives, Role Incompatibility and Fertility : A Study among Lower and Middle Class Residents of San Juan, Puerto Rico",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46, 1968.

의 生涯週期중 出産期에서만 작용될 수 있는 점이며, 많은 자녀를 가졌을 경우는 이들을 扶養하기 위해서 婦人就業은 相對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또 부인의 취업은 家庭과 兩立되지 않아 出産 및 子女養育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만 出産力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취업 자체가 가정과 兩立되었을 경우는 그렇지도 않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가 分析對象으로 했던 부인에게서도 類似性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現就業者, 過去就業經驗者 및 非就業者로 분류한 就業樣相別 現存子女數를 살펴보면 〈表10〉과 같다.

Table 10.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by Age and Pattern of Work

年齡 및 就業樣相別 平均 現存 子女數

(Unit : persons)

Age	Total	Current Worker	Past Worker				Never worked
			Sub Total	Only before	Only after	Before & After marriage	
Total	2.80*	3.32	2.18	1.76	3.56	2.52	2.86
15~24	0.81	0.70	0.79	0.73	1.67	1.08	1.31
25~34	1.80	2.03	1.62	1.60	2.09	1.62	1.94
35~44	3.00	3.22	2.73	2.69	3.02	2.51	2.77
45~54	4.07	4.30	3.80	2.97	4.12	4.11	3.60
55~64	4.58	4.92	4.17	4.56	4.10	4.09	4.36

*N=3,013

동 表에서 15~64歲 부인의 平均 現存子女數는 2.8名으로 이는 高齡일수록 많아 完結出産期인 45歲 이상의 부인은 4名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 就業樣相別로는 現就業者의 現存子女가 3.32名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非就業者로 2.86名, 그리고 가장 적은 子女數를 둔 부인은 過去就業經驗 부인으로서 2.18名이다. 그러나 과거취업경험 부인의 就業時期를 結婚前後別로 분류해 보면 過去 結婚後에만 취업경험이 있는 부인이 가장 많고(3.6名), 結婚前에만 취업한 부인이 가장 적은 자녀(1.7名)을 두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15~24歲부인에서는 現就業 부인이 가장 적은 자녀를 두고 있으며 多産期인 25~34歲의 경우는 過去就業經驗 부인, 그 중에서도 結婚前에만 취업했던 부인의 현존자녀수가 가장

Table 11.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by Current and Past Occupation and Age

現在 및 過去 就業者의 職種 및 年齡別 平均 現存子女數

(Unit : persons)

Occupation	Total	15~24	25~34	35~44	45~54	55~64
Current Occupation	3.32*	0.70	2.03	3.22	4.30	4.92
Prof. tech. adm. and clerical workers	1.55	0.29	1.28	2.43	3.29	3.00
Sales and services workers	2.83	0.79	2.04	2.79	3.60	4.19
Agri. and forestry workers	4.25	1.22	2.46	3.87	4.89	5.24
Production workers and labourers	2.62	0.46	1.97	2.88	3.85	4.00
Past Occupation	2.18**	0.79	1.62	2.73	3.80	4.17
Prof. tech. adm. and clerical workers	1.73	0.51	1.49	2.58	3.04	3.50
Sales and services workers	2.54	0.67	1.59	2.47	4.08	4.03
Agri. and forestry workers	3.82	—	2.25	3.43	4.42	4.72
Production workers and labourers	1.91	0.99	1.69	2.89	3.40	3.00

* N=1,336
** N=1,176

적었다. 이와같이 就業樣相에 따른 子女數의 差異는 어느 시기에 취업하느냐가 바로 出産力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就業職種別 現存子女數는 職種이 家事兩立職이냐 또는 獨立職이냐 하는 점과 教育水準과의 複合概念에서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表11〉을 보면 現就業부인이나 過去就業經驗 부인 모두 家事와 獨立된 職인 專門·技術·行政 및 事務職에 종사하는 부인의 경우 子女數가 가장 적으며(현취업 부인 : 1.6명, 과거취업경험 부인 : 1.7名), 家事兩立職인 農業關聯職 종사자의 경우 자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취업부인 : 4.25名, 과거취업경험 부인 : 3.82名)

年齡別로 보면 現就業 부인의 경우는 전체 연령층에서 專門·技術·行政 및 事務職 從事婦人의 자녀수가 가장 적으며, 過去就業經驗 부인의 경우는 35~44歲 연령층과 55~64

歲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만 專門·技術·行政 및 事務職 종사자의 자녀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자녀를 둔 경우는 現就業 부인이나 過去就業經驗 부인 모두 農業關聯職에 종사하는 부인들이다.

이처럼 婦人의 就業과 出産力은 就業時期 및 職種의 家事兩立職 與否에 따라 영향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結 論

近代化에서 女性의 教育水準 向上과 함께 就業率의 증가, 이로 인한 晩婚과 少子女家族 形成은 이들의 役割變化에 주요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研究는 女性就業과 出産力은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규명하려는데 焦點을 두었다.

이 研究에서 이용한 資料는 1986年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이 조사한 全國家族生活週期調査이며, 동 자료는 15~64歲 旣婚婦人의 結婚, 出産 및 就業歷을 포함하고 있어 就業과 出産力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分析結果에 의하면 女性就業은 그 자체만으로 結婚 및 出産力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生涯週期에서 언제, 어떤 形態로, 어떤 職種에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影響力을 달리하게 된다. 즉 教育水準 向上과 함께 婚前就業은 婚期를 늦추게 하는데 영향을 주며, 出産期에서의 就業은 出産間 間隔을 늘리면서 少子女를 갖는 경향을 뚜렷하게 하였다. 또 就業形態에서도 家庭과 獨立된 경우는 兩立된 경우보다 結婚 및 出産力에 주는 영향이 크며, 職種에서도 專門·事務職일 수록 늦게 結婚하거나 少子女를 갖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 旣婚女性의 結婚前就業經驗率은 약 60퍼센트에 달하며, 이들 중 약 45퍼센트는 結婚後까지 就業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女性就業의 보편화와 함께 家庭과 독립된 職種에서의 就業率의 증가는 出産力 低下에 보다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婦人의 就業率 增加와 低出産力은 그 자체만으로서는 近代化 指標가 될 수 없고 近代的 生活様式과 價値觀의 定立, 그리고 合理的인 制度改善이 뒤따를때 近代化도 확립될 수 있음을 생각케 된다. 傳統的으로 家事에 국한되어 왔던 여성의 역할이 家事外的인 就業과 병행됨에 따라 家庭은 合理的인 역할분담과 함께 價値定立이 요구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家庭內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社會的으로도 男性爲主

로 固着된 制度가 바뀌어지지 않을때 여성취업의 普遍化에 따른 社會的 問題는 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家庭과 社會는 諸機能이 均衡과 調和를 이루면서 役割分擔이 合理的으로 이루어져야 社會發展도 기할 수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66, 1975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第1卷, 1969, 1977.

孔世權 外, 韓國 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12.

具成烈, "旣婚女性의 經濟活動과 出産力", 韓國開發研究, 1(3), 韓國開發研究院, 1979.

具成烈外, "家族規模의 法定要因과 旣婚女性의 經濟活動", 韓國開發研究, 2(4), 韓國開發研究院, 1980.

金應錫外, "授乳 및 産後無月經이 出産力에 미치는 영향", 韓國의 出産力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6.

勞動部, 勞動統計年鑑, 1977, 1986.

_____, 1983年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1984.

盧美蕙外, 女性의 就業實態調査報告, 韓國女性開發院, 1986.

朴丙台, 1976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 1978.

宋瑋燮, "勞動力의 質的 水準向上과 經濟成長", 韓國人口學會誌, 7(1), 韓國人口學會, 1984.

李時伯, "韓國婦人의 出産間隔에 관한 分析", 韓國의 出産力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6.

韓仁淑, 金弘淑, "韓國女性 經濟活動 參與와 出産力에 관한 研究", 人口綜合分析시리즈,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洪思媛, "女性의 就業狀態와 出産力 變化", 韓國開發研究, 創刊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Blake, Judith, "Demographic Science and Redirection of Population Policy", *Public Health and Population Change,* Windel C. Sheps and Jeanne Clare Ridley (eds.), University of Pittsburg, 1965.

Chung, Bom Mo and Others, *Psychological Perspective : Family Planning in Korea,* Seoul, Hollym Corporation, 1972.

Cochrane, Susan Hill, "The Effect of Income on the Demand for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New York, April 1974.

Davis, Kingsley, Judith Blake,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 An Analytic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 1956.

Donaldson, P. J., D. J. Nichols, "Changing Tempo of Fertility in Korea", *Population Studies,* Vol. 32, No. 2, 1978.

Dixon, Ruth B., "Women's Rights and Fertility", Reports on Population/Family planning, No. 17, 1975.

Freedman, R., P. Whelpton and P. A. Campbell, *Family Planning, Sterility and Population Growth,* Mcgraw-Hill Book Company, Inc., New York, 1959.

Freedman, Ronald,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 An Annotated Bibliography,* New York, Irvington Publishers Inc., 1965.

Freedman, Ronald John Y. Taheshita, *Family Planning in Taiwan : An Experiment in Social Chan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Gille, Halvor, "Summary Review of Fertility Differentials in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London(Liege), Vol. III, 1969.

Heer, D. M., "Educational Advance and Fertility Change", in IUSSP,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London, 1969.

Hauser, Philip, "A New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the Work both in Developing Area", mimeo, 1971.

Hull, Terence, Valerie Hull, "The Relation of Economic Class and Fertility : An Analysis of Some Indonesian Data", *Population Studies,* Vol. 31, No. 1, March 1977.

Kang, Y. J., *Analysis of Birth Interval and Fertility in Korea,*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81.

Myrdal, Gunnar, *Asian Drama,* New York, Pantheon, 1968.

Macable, James L., and Mark R. Rosenzweig,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ccupational Choice and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J.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3, 1976.

Piepmier, K. B., T. S. Adkins, "The Status of Women and Fertility", *J. of Biosocial Science,* Vol. 5, 1973.

Ridley, Jeanne C., "Number of Children Expected in Relation to Non-familial Activities of the

Wif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37, No. 3, July 1959.

Sklar, June, "Childless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1971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Washington D. C., 1971.

Stephens, W. N., *The Family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3.

Turner, Ralph H., "Some Family Determinants of Ambitio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 46, 1962.

Ware, Helen, *The Relevance of Changes in Women's Roles to Fertility Behaviour : The African Evidence,* The Population Council, New York, 1975.

Weller, R. H., "The Employment of Wives, Role Incompatibility and Fertility : A Study among Lower and Middle Class Residents of San Juan, Puerto Rico",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16, 1968.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Ae-Jeo Cho*, Sae-Kwon Kong**

The Korean Family Life Cycle Survey data on women's employment are used to explore variations in women's employment patter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In general, employment rates increased with women's age. Women in rural areas are more likely to work than those in urban areas, showing areal disparity. These patterns are clearly linked to different work-opportunity structures. As a rule, the most educated and the least educated were more likely to work whereas respondents in the middle educational categories were least likely.

It has already been recognized that the employment period during the life course may be related to fertility in various ways. One is delay of marriage among women who had worked before they marry. The relatively better financial situation of unmarried working women contributes to the desire to extend single life compared with non-working women. In addition, particular types of works may provide exposure to ideas and norms that discourage early marriage. It may also be true that single working women who contribute to household income have some influence on women's decisions to postpone marriage.

The results show that women who had worked at all before marriage married somewhat later than women who had never worked before marriage. For example, women who had got a professional and clerical occupations, married about three years later than women who had not worked before marriage. Among women who had been employed before marriage, age at marriage differ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occupations. For example, women with working experience in professional and clerical occupation, before marriage had the highest mean age of marriage.

*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Populaton and Health.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resulted that women in professional and clerical works bore somewhat fewer children on average than women with no recorded economic activity. In domestic household employee and agricultural work, however, no such relationship is observed.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 and fertility is strongly linked to the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While a strong and consistent negativ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professional occupations and fertility in the more urbanized areas, that was not the case among the poorer rural areas. In contrast, women with agricultural jobs generally showed remarkably similar fertility patterns to women with no recorded economic activity. The measured work-fertility relationship may be partially explained through the influence of fertility experience on subsequent work patterns.